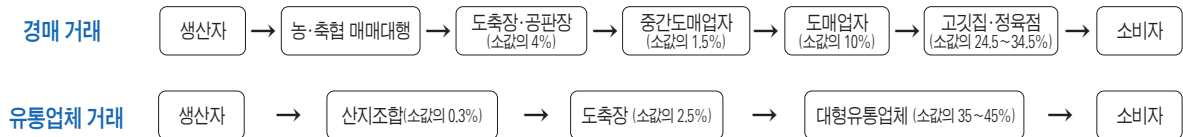


■ 쇠고기 유통 흐름도



‘소도 웃을’ 쇠고기 유통구조

소값 급락해도 쇠고기값 그대로 하락 차이 중간 유통단계서 생겨

“산지 소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왜 정육점 쇠고기값은 안 내려요?” 지난 5일 저녁 반찬을 마련하기 위해 정육점을 들른 주부 K모(46·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요리부동인 쇠고기값에 대해 고개를 갇웃했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 4월초 한미 FTA협상 타결 이후 전남지역의 산지 소값은 5~15% 떨어졌으나, 쇠고기 소비자 가격은 벌써 두달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전남지역에서 거래되는 큰 암소(600kg 기준)와 큰 수소(600kg 기준) 가격은 각각 481만8천원, 446만5천원이었다. 한미 FTA가 체결되기 전인 지난 3월말에 비해 8.9%(47만2천원), 5.5%(26만2천원) 떨어졌다. 또 암송아지는 14.6% 떨어진 220만8천원, 수송아지는 9.1% 하락한 200만1천원에 거래됐다.

이처럼 산지 소값은 급락하는데 반해 유통업체와 한우 고깃집의 쇠고기값은 여전히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광주지역 백화점과 할인점에서 판매

되는 한우 등심의 가격은 1등급 100g당 7천900원, 양지 3천980원, 불고기용 2천150원으로 한달전과 같았다. 한우 고깃집도 사정은 마찬가지. 동구 한우고기 전문점의 경우 등심 가격이 100g 당 7천830원, 불고기용 4천원이다.

◇중간마진이 ‘주범’=산지 소값은 내리는데 소비자 가격은 왜 요리부동일까? 유통 전문가들은 “산지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4~5단계를 거칠 만큼 유통경로가 복잡해, 중간 유통업체들이 소값 하락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시키지 않고 추가이익(마진)으로 챙겨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쇠고기는 전남농협 등에 공판·도축장→중도매인→일반도매인→소매점까지 보통 4~5단계를 거치면서 40~50%의 중간마진이 붙는다.

소비자가 1등급 한우를 1만원 여치 샀다면 축산농가 몫은 5천~6천원에 불과하고, 도매업자가 1천150원, 최종 판매업자인 소매점이 2천850~3천850원을 챙긴다. 검사·등급관정에

드는 비용은 400원이다. 특히 한미FTA 협상 타결이후 한달여 동안 산지 소값이 50만원 가량 하락했으나,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소값 하락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들만 비싼 쇠고기를 사먹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유통단계 과감히 축소해야=결국 한우의 소비자 가격을 붙들고 있는 것은 ‘먹이사슬’ 같은 복잡한 유통단계가 ‘주범’인 셈이다. 이는, 전북 정읍시 산외면이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 전국적인 ‘한우마을’로 거듭난 사례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비거세수소를 판매하고 있는 산외면은 농가→정육점·식당의 유통구조를 구축, 중간 유통단계를 없앤 결과 소비자 가격을 과격적으로 낮췄다.

안심·제비추리 등은 100g에 2천300원, 불고기·장조림용은 1천670원 수준으로 광주 시내 음식점의 삼겹살 가격(3천500원) 보다 싸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1~3개의 중간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직거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유통구조개선이 당장 어려운 경우 산지 소값의 등락을 소비자 가격에 연동시키지 않는 중간 유통업체들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



온누리안 웃음꽃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동명중 체육관에서 열린 ‘다(多) 모여라 다(多) 문화소통 우리누리’ 행사에서 온누리안(국제결혼가정) 어머니와 어린이, 자원봉사자들이 율동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영주 기자mjna@

韓-EU FTA 오늘 협상 개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 위한 1차 협상을 7일 개시한다.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6일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한-EU FTA 협상의 출발을 공동 선언하고 7일부터 11일까지 신라 호텔에서 1차 협상을 갖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양측 수석대표는 김한수 통상교섭본부장 FTA 추진단장과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 담당국장이 각각 맡았다.

4개 분야로 구성된 양측 협상단은 첫날의 1차 협상기간에 상품(7~10일), 서비스·투자(7~11일), 총칙 및 분쟁절차(8~10일), 통관 및 무역원활화(7~8일), 위생·검역(9일), 기술장벽(10일), 지적재산권(8일), 경쟁(10일), 정부조달(10~11일) 등 분야별로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한다. /연합뉴스

“5·18 美성명 신군부가 차단”

버시바우 대사 특별인터뷰…‘광주 목인’ 부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정부가 군부의 진압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한국 내 의구심과 관련 “미국 정부는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고 나서 (한국) 군부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공개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군부 검열로 인해 한국 국민들에게 전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광주민주화운동 27주년을 앞두고 광주일보와 부산일보, 매일신문(대구)과 공동으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두환 군부 세력은 한국 언론의 장악을 통해 마치 미국 정부가 (군부를) 지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남겨 지금까지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다”고 유감을 표했다. <인터뷰 전문 6면>

버시바우 대사는 당시 미국 정부가 군부에 전한 메시지에 대해 “민간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민주화를 위한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설득하

는데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비준과 관련 버시바우 대사는 “협상 타결이 아니냐는 한국 내 의구심과 관련 “미국 정부는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고 나서 (한국) 군부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공개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군부 검열로 인해 한국 국민들에게 전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불능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북한과 전 세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북미,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물론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체제 구축도 가능하다고 본

다”며 북한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해왔으며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한국의 포용정책도 지지하고 있다”며 “특히 6자회담과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직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버시바우 공대 총격 사건과 관련 “미국 국민들은 한국 국민들의 위도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와 인종이 관련된 일이 아니며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에도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희장 ‘보복 폭행’ 인력 동원 협력업체 D토건 압수수색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이번 주 초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키로 하고 막바지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날 오후 한화 협력업체인 D토건 대표 김모씨가 한화측의 지원요청을 받고 인력을 동원해 폭행 현장에 갔다는 제보에 따라 D토건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에서 김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5면>

경찰은 또 한화 김모 비서실장과 D토건 김 사장, 폭행 현장에 모두 동행한 김 회장의 차남 친구인 이모씨 등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들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전날 김 회장 측에 폭행당한 S클럽 종업원 등 3명을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최권일기자 cki@

우암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전화 1588-5051 ▶ T.061)360-5000

제52회 호남예술제

▶ 미술·작문·논술[예선]
5월1일~5월19일 접수

▶ 현장예선심기대회
5월9일까지 접수

▶ [5월11일, 금호패밀리랜드]
▶ 미술·작문부문 입선제도입

www.kwangju.co.kr (한글)광주일보
(062)222-0541 · 222-8111



kiss the future, 뉴욕생명





당신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준비할 사람들입니다

나와 가족의 편안하고 행복한 미래, 가장 먼저 뉴욕생명의 FC와 상의 하십시오. 다양한 경험과 훌륭한 교육으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고객의 상황과 목표를 가장 정확하게 제시하여 안심하며 미래를 기다릴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무디스, 신용등급 Aaa 상향 미국 New York Life, 보험 재정 안정성 부문에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상향조정 (2005년 12월) 미국 보험회사 중 다른 두 개 회사만 Aaa 등급 획득

Fortune 선정, 100대 기업 미국 New York Life,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생명보험회사 2위

52년 연속 MDRT 회원 1위 미국 New York Life, 2,300여 명이 회원 자격 보유 미국내 52년 연속 MDRT 최다 회원 배출

NYLIC-University(교육프로그램) 미국 New York Life에서 25% 이상의 Agent들이 MDRT 회원이 될 수 있었던, 오랜 전통과 역사로 축적된 선진 교육시스템



김 석 MP 문종식 Partner 조영규 FC 박희윤 FC 황원주 FC 김제형 Partner 이정준 FC 황희준 FC 한진국 FC

■ 미국 New York Life의 한국 현지법인인 뉴욕생명에서 새로운 직업의 가치와 가능성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은 광주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